■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25-366.
http://doi.org/10.17948/kcs.2020..89.325

미결정의 공포에서 숭고한 공포로*
—식민지 조선 공포 서사의 분화과정 연구—

김지영(金芝英)**

목 차

1. 들어가며
2. 귀신과 도깨비, 혹은 미결정의 공포
3. 민족 知의 위계화와 공포의 타자화
4. 타자화된 인간과 숭고화된 공포
5. 나오며

국문초록

한국의 오락적 공포물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은 1927-1930년 『매일신보』에 마련된 괴담란이었다. 『매일신보』의 괴담란은 귀신, 도깨비라는 초현실적 대상에 의거하여 공포물을 시도했고, 전래 이야기와 당대의 경험담을 병치하면서 구성되었다. 기자 가족의 견문이나 독자층의 투고라는 수평적인 시선에서 펼쳐진 발아기 『매일신보』의 괴담들은 주술과 과학의 어느 쪽도 승인하지 못하는 미결정의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근대와 전근대에 대한 양가적 저항감을 노출했다. 공포물이 귀신, 도깨비 등 소재의 기이성에 의존하는 쪽으로 진전되면서, 괴담란을 구성하는 미디어의 주체들은 귀신·도깨비의 사실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이때 설명하기 어려운 초현실적

* 이 연구는 2020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대구가톨릭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경험에 대한 거리화 욕망은 괴담을 과거의 이야기로 화석화하는 논리를 통해 현존의 안정감을 확보하려 했다. 괴담이 전근대의 시간성과 밀착한 것은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현재의 것으로 전유하고 불합리, 부조리한 것을 과거에 투사하는 근대 知의 자기 합리화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월한 근대의 입지를 확보하는 수직적인 시선 속에서 귀신과 도깨비는 선형적인 시간 리듬의 내부로 안착했고, 괴담은 근대적 삶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민속의 일부로 정착해 갔다.

대중성을 추구했던 종합지 『조광』은 과거화된 '괴담'과 뚜렷히 구별되는 지점에서 '괴기'를 인식하는 위계적 시선 속에서 괴기소설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출범시켰다. 자민족의 과거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나르시시즘적 우월감과 쾌락적 공포라는 난해한 감각에 대한 도전의식 속에서 『조광』의 괴기소설들은 숭고한 공포의 감각을 표현해냈다. '괴기소설'에 이르러 식민지 공포서사는 인간 내부에서 존재의 안정감에 균열을 일으키는 심연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비로소 주술적인 외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쾌락적 공포에 대한 대중문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식민지 괴기소설은 그 출발 지점에서 근대에 대한 식민지 청년의 동경 내부에 숨은 결핍과 불안의 감각을 노출했다. 사랑의 광기와 죽음 충동을 소재로 한 『조광』의 괴기소설들은 근대성을 지향하는 존재 내부의 숨은 결여와 이 결여의 충족불가능성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근대성이 실패하는 지점들을 드러냈다.

주제어: 공포, 대중소설, 장르소설, 대중 감성, 식민성, 괴담, 괴기소설, 김내성,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광, 귀신, 도깨비, 그로테스크.

1. 들어가며

공포를 오락적으로 소비하는 풍속은 근대의 산물이다. 1920년대 말엽 전파된 에로, 그로, 넌센스 문화가 조선에도 무서운 이야기를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취미 문화를 양산했음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지적된 사실이다.[1] 전근대부터 존재했던 기괴, 괴기의 관념은 그로테스크라는 이국

1)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2005, 43-87면;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서: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박숙자, 「괴기에서 넌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별건곤』을 중심으로」, 제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75-195면; 김지영, 「'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소통』 제5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0; 이주라, 「식민지 시기 괴담의 출현과 쾌락으로서의 공포」, 『한국문학이론연구』 제6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93-321면.

적인 미학 기호와 결합하면서 식민지 대중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취미 기호로 변모했다. '기괴', '괴기', '괴담', '기담'은 서로 혼융되어 쓰이면서, 근대 사회가 배제하고 억압했던 일련의 사건, 사실, 태도, 행위, 풍속, 경향, 트렌드 등을 가리키는 유력한 어휘로 부상했다.[2)]

'怪'와 연관된 어휘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를 변별하는 서사 양식의 타이틀로 먼저 부각된 것은 '괴담'이었다. 1920년대 말까지 근대 소설이 아닌 비주류 서사 양식들은 야화, 야담, 기담, 기화, 물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전래의 이야기나 대중들이 즐겨 읽는 사건, 사고의 서사들이 양식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장르 미분화의 풍토 위에서, '괴담'은 가장 먼저 공포물을 특화하여 지칭하는 명명어로 부상했다. '괴담'이라는 양식명의 부상에는 일본 문화의 영향이 컸다. 1825년『東海道四谷怪談』이 출간된 이래 일본에서 유행했던 괴담 문화가 식민지 조선에도 전파되었던 것이다. 나카무라 시즈요에 따르면, 다이쇼와 쇼와 시대 일본에서 일었던 괴담붐은 재조선 일본인들을 위해 발간되었던 일본어 신문과 잡지, 영화와 서적을 타고 식민지 조선에도 빠르게 전달되었다.『괴이초지』(1925),『괴담명작집』(1927),『세계괴담명작집』(1929), 선진사 판 괴담 시리즈(1931) 등의 일본 출판물들이 빠르게 보급되는 한편, 일본어와 조선어 신문에 그 광고가 실리면서 관심을 끌었다. 또,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일본의 괴담 영화가 적어도 55편 이상 조선에

2) 공포는 상대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양식이다. 서구에서 호러는 판타지와 SF에 상당 부분 겹쳐 있는 장르로 흔히 언급된다. 또, 스릴러나 미스테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장르를 분리해 내려는 노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언술되기도 한다. 폴 웰스,『호러 영화: 매혹과 저항의 역사』, 손희정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8면. 공포 양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작업은 이 글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본고는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공포를 오락거리로 즐기는 관습이 형성되어 간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서구 장르 개념을 한국에 적용하기보다는 공포의 정서를 활용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오락적 서사 양식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성립하고 움직여나갔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괴담'과 '괴기소설'은 공포의 정서를 활용한 태동기의 대중 서사 양식을 가리켰던 한국적 서사 명칭이다. 본고는 이 타이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어떻게 움직여나갔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괴담, 괴기소설이라는 타이틀이 지닌 내포도 당대의 의미망 안에서 '구성'하는 발생론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당대에 그로테스크와 미스테리, 공포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의미장을 형성했던 '괴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계승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김지영, 앞의 글, 39-78면;「괴기, 불균등한 근대에의 저항과 공포의 변증법」,『우리문학연구』제64집, 우리문학회, 2019a, 412-415면.

개봉되었으며, 『경성일보』, 『조선급만주』 등 다양한 일본어 신문과 일본어 잡지들에 일본의 전래 이야기에 토대를 둔 '괴담'들이 게재되기도 했다.[3)]

1927년 『매일신보』의 '괴담'란은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인 발간 매체 가운데에서 오락적 이야기 양식으로서 공포물을 본격적으로 변별·특화하여 공공화한 첫 시리즈에 해당한다. 1926년 『시대일보』에 게재된 「기문괴담」 또한 기괴한 이야기를 담은 짧은 시리즈물로 구성되었으나, 사실적인 사건 보도에 가깝다는 점에서 허구적 서사성을 바탕으로 한 순수 오락 양식으로 출발했던 『매일신보』의 괴담란과는 차이가 있다. 1927년 14편의 괴담을 연속해서 게재했던 『매일신보』의 괴담란은 1930년 '괴기행각'란으로 개명하여 다시 한 번 20여 편의 무서운 이야기를 실으면서, 식민지 조선에 오락적인 공포 양식의 출발 지점을 형성했다. 『매일신보』에서 변별적으로 양식화되었던 공포물은 이후, 라디오방송 괴담, 『별건곤』, 『중앙』, 『조광』 등의 종합지에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단편 서사물, 『조선일보』의 괴담 시리즈(1933·1939)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래의 무서운 이야기를 양식화한 장르로 정착해갔다. 조선어 미디어들이 게재한 '괴담'들 가운데는 홍재상 일화를 소재로 한 상사뱀 이야기, 도깨비불의 정체를 밝힌 포도대장 이야기, 붉은 구슬 이야기 등 반복적으로 실리는 서사물들이 발견된다. '괴담'의 이름으로 반복되었던 이 이야기들은 '괴담'이라는 문화적 표상의 의미장이 여러 매체들을 횡단하면서 동일성의 카테고리를 구성해갔던 당대 취미 양식의 정착 과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의 대중적 공포물을 가리키는 서사 양식이 '괴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매일신보』의 공포물이 1927년의 '괴담'란에서 1930년 '괴기행각'란으로 바뀐 데에서 알 수 있듯, 1930년경에는 '괴담' 만큼이나 '괴기'라는 어휘가 유력하게 부상했다.[4)] 에로-그로-넌센스 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시

3) 나카무라 시즈요(中村靜代), 「植民地朝鮮における怪談の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4) 1920-1940년 『동아일보』에는 '괴담'이라는 어휘가 36건, '괴기'라는 어휘는 203건 발견된다. 그러나 '괴기'가 제목에 출현한 것은 11건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괴담'이 개념적 양식적 의미로 사용된 것과 달리, '괴기'는 개념적 의미보다는 서술적 의미로 더 많이 쓰였던 정황을 알려 준다. 통계는 「뉴스라이브러리」, 네이버,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2020. 9. 30. 검색) 활용.

기를 같이 하는 '괴기'라는 어휘의 첨단성이 '-담'이라는 재래의 명칭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괴담'과 '괴기'는 서로 경쟁하면서 공포물을 표상하는 기호로 발전해갔다. 1929-1933년 『별건곤』은 3편의 '괴기실화'와 4편의 '괴담'을 싣는데,[5] 괴기실화와 괴담 사이의 경계는 모호했다. 조선, 일본, 서양의 괴상하고 무서운 이야기나 사건을 담았던 이 기사들에서 '괴담'과 '괴기실화'라는 명칭은 시간/공간이나, 사실/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혼종적으로 쓰였다. '괴담'의 우위 속에서 '괴담'과 '괴기'가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1930년대가 깊어갈수록 괴담은 전래의 이야기로 구성된 공포물로 그 의미가 점차 좁혀져 갔다.

본격 문학자들의 창작 공포물이 등장한 것은 이즈음이다. 1937년과 1938년 종합지 『조광』은 김내성의 「광상시인」과 주요섭의 「낙랑 고분의 비밀」을 '괴기소설'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했다. 두 작품은 전통 문헌이나 민간에 떠돌던 고담으로 구성된 '괴담'과 달리, 당대를 무대로 한 창작물이었다. 그러나 '괴담'과 '괴기소설'이 당대성과 창작 여부에 의해서만 변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간 서양의 공포소설이 '괴담'의 이름으로 실리거나[6], '모던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창작 공포물[7], '夏宵讀物 괴담'이라는 타이틀로 게재된 현대적 이야기[8] 등 당대 이야기가 괴담으로 불린 사례 또한 여타 미디어에서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괴담' 양식의 출발 지점에 있었던 『매일신보』의 '괴담' 가운데는 전래 이야기만큼이나 당대를 무대로 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괴담'이 반드시 전래의 이야기만을 가리키는 양식명이나 비창작 양식으로만 출발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기소설'은 괴담의 역사성, 전승성과 구분되는 당대적 창작이라는 변별성 속에서 식민지 후반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서사 양식으로 등장했다. '괴기소설'의 등장은 전래 이야기 '괴담'과 구분하여 공포서

---

5) 1929-1933년간 『별건곤』은 「天下怪談 相思뱀 이약이」(1929. 1.), 「世界奇談, 醫學的 怪談」(1929. 8.), 「泰西怪談, 空中을 나는 幽靈船」(1932. 9.)이라는 세 편의 괴담과 「大怪奇實話 處女鬼! 處女鬼!」(1931. 5.), 「怪奇實話 피무든 手帖」(1933. 3-5.), 「怪奇實話, 麻雀殺人」(1933. 11.)이라는 세 편의 괴기실화를 게재했다.

6) 류방, 「태서괴담, 공중을 나는 유령선(하)」, 『별건곤』, 1932. 9., 44-46면.

7) 『중앙』 1934년 7월에 발표된 九仙佛의 「황금귀의 탈춤」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8) 「무시무시한 여름밤 이야기써리; 하소독물 괴담」, 『매일신보』, 1936. 8. 6., 3면.

사를 본격적인 근대적 창작 소설 양식의 하나로 인식하는 새로운 의식의 출범을 알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괴담과 괴기소설은 과거와 미래라는 각기 다른 시간성의 지향 속에서 전개된다.

괴기소설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괴담과 전근대의 느슨했던 결합이 강고해지는 순간에 탄생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근본적으로 '괴'란 사회가 배척하고 금지하는 타자들을 가리키는 표상이다. 그러므로 공포의 서사들은 그 사회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배척했던 것들을 담아냄으로써 역으로 그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을 알려 주는 유력한 공간이 된다. 공포 서사의 스토리들은 식민지 사회가 타자화한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역으로 식민지 조선의 정상성을 구성하는 힘과 요소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괴담과 괴기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성의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취미 문화가 구성하는 정상성의 감각 안에 재래의 전통과, 식민지 현재, 그리고 소망스런 미래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근대와 전근대라는 시간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주체와 전승·향유하는 대상의 관계의 문제, 서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의 문제, 이야기가 다루는 환상적 모티프들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 점에서 괴담과 괴기소설의 분화과정은 근대/전근대의 시간성과 사실성의 감각, 매체와 주체성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작동하는 복잡한 운동의 과정이었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처럼 모던한 취향에 대한 욕망에서 빚어지는 한국 공포서사의 출발 지점을 양식의 분화라는 맥락에서 고찰하고, 괴담/괴기소설의 분화 과정을 근대 知가 운동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성찰하고자 한다.[9] 대상 자료는 『매일신

9) 일제강점기 괴담을 탐구한 선행 연구로는 이주라, 김지영, 나카무라 시즈요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주라(2013) 한국 공포 장르 관습의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오락적 공포 서사가 시작한 과정을 담론, 삽화, 스토리 등의 복합을 통해 고찰하였고, 이주라(2015), 염원희, 김지영은 『매일신보』 괴담란의 서사적 특성을 서사관습, 전통 서사와의 차이, 감성구조의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였다. 이주라, 앞의 글, 2013;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한국 공포물의 장르적 관습—『매일신보』 소재 괴담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5집, 우리문학회, 2015, 341-374면; 염원희,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현대 도시전설의 형성에 관한 시고—『매일신보』 연재 괴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69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57-90면; 김지영, 「계몽의 불안과 공포의 영토화—일제

보』, 『조선일보』, 『조광』에 실린 공포물들이다. 세 매체의 공포물들은 현전하는 식민지 시기 자료 가운데 공포 서사의 출발과 분화를 보여주는 데 유력한 자료들이다. 1927-1930년에 실린 『매일신보』의 괴담/괴기행각란은 한국 공포서사의 출발지점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후 1930년대 공포서사는 여러 매체들에서 분산적, 파편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일보』의 일요특집 〈괴담〉(1933), 〈거리의 괴담〉(1933), 〈연속괴담〉(1939)은 『매일신보』가 보여주었던 양식화 의지를 이었던 연재물로, 식민지기 민족 매체 가운데 드물게도 일정량 이상의 시리즈를 구성한 공포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세 번째 매체인 『조광』은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 가운데서는 최초로 괴기소설을 게재한 매체에 해당한다. 대중적 종합지로 창간된 『조광』은 최초의 본격 탐정소설가이자 괴기소설 작가였던 김내성이 편집진에 참여했던 잡지이기도 했다. 야담, 사담, 소설, 실화, 동화, 괴담, 유우머 등을 망라했던 『조광』이 '괴기소설'을 변별적으로 의식하고 표방했던 배경에는 이야기의 내용과 구조, 발화방식과 지향성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서사를 구분하는 사고 세련화의 맥락이 숨어 있다.[10]

다양한 매체를 횡단하는 양식의 분화 양상은 다량의 매체와 정보를 고찰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매체의 지명도와 수록된 작품량, 괴담에 대한 직접 언술 등의 측면에서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광』은 식민지 대중 공포서사의 성립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만하다. 논의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광』이라는 매체의 지면들을 차례로 조명

강점기 『매일신보』 괴담의 감성구조와 서사관습」, 『어문논집』 제87집, 민족어문학회, 2019b, 117-160면. 한편, 나카무라 시즈요의 앞의 논문에서는 일본의 괴담 양식의 한국 도입 과정을 재조선 일본인 미디어와 『매일신보』 등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괴담, 괴기소설의 분화 속에서 발생하는 근대 지의 운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10) 식민지 시기 '괴기소설'로 발표된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괴기소설'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된 소설은 모두 네 편이다. 「광상시인」을 비롯하여 「백사도」, 『농업조선』, 1938. 8-9.; 「무마」, 『신세기』, 1939. 3.을 포함한 김내성의 작품 세 편과 주요섭의 「낙랑 고분의 비밀」이 그것이다. 오늘날 괴기소설로 일컬어지는 김내성의 「이단자의 사랑」과 「屍琉璃」는 당대에는 '탐정소설'로 발표되었다. '괴기소설'이란 조선 대중서사 장에서는 실로 갓 등장하기 시작한 양식명이었던 셈이다. 김내성이 '괴기소설'로 발표한 세 편의 소설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띤다. 따라서 『조광』의 괴기소설 논의는 당대의 지평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괴기소설은 조선에 유입된 일본어 작품들과의 관련성과 더불어 앞으로 더 발굴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대상 시기 내에서 『매일신보』의 공포물은 1927-1930년대 후반까지, 『조선일보』의 공포물은 1930년대 전반에서 1930년대 말까지, 『조광』의 공포물은 창간(1935) 이래 1930년대 말까지의 시기에 걸쳐 발표된다. 따라서 각 매체의 공포서사들은 시기적으로 겹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지만, 1930년 전후가 발아기의 단계,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가 형성기의 단계, 1930년대 후반이 확립기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선이 마련된다. 논의는 이와 같은 시기적 진행을 염두에 두되, 작품의 발화와 향유 주체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매체별로 진행하기로 한다. 단, 세 매체는 시기별 대표성을 지니는 것일 뿐, 여기서 논의하는 공포 양식의 성립과정은 개별 매체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각 챕터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광』의 순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시기별 특성을 확인해 주는 다른 매체의 공포물에 대한 언급들도 부분적으로 포함한다.[11]

2. 귀신과 도깨비, 혹은 미결정의 공포

주지하다시피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로 발간된 관권 신문이었다. 재조선 일본인들을 위해 발간된 일본어 신문 『경성일보』의 자매지였던 『매일신보』는 일본인 독자나 조선인 독자 어느 쪽에도 주도적인 우선권을 얻기 어려운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매체였다. 1920년대부터 1934년까지 3만 부 미만의 부수를 발행했던 『매일신보』는 매체의 약세를 재미있는 읽을거리의 확보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염상섭, 최서해, 이익상 등 조선인 문인들을 기자로 채용하고 방인근, 이서구, 박태원, 이효석 등의 장편소설을 싣는 것과 같은 노력은 조선 문화와의 융화를 통해 사세 확장을 도모했던 신문 기획의 결과였다.

1927년 만들어진 〈괴담〉란과 1930년 〈괴기행각〉 시리즈는 학예·문예란을 증설하여 통속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대중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신문사

11) 그러니까 각 매체는 시기별 특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며 공포 양식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주도적인 모델 사례의 의미를 지니는 셈이다. 매체별 논의는 문화론적 문학 연구들에서 종종 발생하는 임의적인 발췌 서술의 위험을 피하면서, 연구의 제한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의 기획 특집의 하나였다. 일본 괴담 문화의 영향 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특집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획이 시리즈의 핵심 소재로 표방했던 것은 귀신과 도깨비였다.

> 독갑이가 잇느냐? 업느냐? 이것은 학자들이나 ᄉᆡᆼ각할 문제이다. 엇제ㅅ든 어느 곳 치고 독갑이 이야기 하나 업는 곳은 업고 더욱히 녀름이면 그 이야기가 셩풍하다. 이제 독갑이에 대한 이야기를 사원들 즁에셔 격거나 또는 사원ᄋᆡ 가족이 톄험 목도ᄒᆞᆫ 가쟝 밋을 만한 이야기만을 ᄃᆡ하야 몇칠 동안 소개하야 독자의 흥미의 일단을 도읍고자 한다.[12]

〈괴담〉 시리즈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근간은 '독갑이'였다. 여기서 '독갑이'는 인간의 사령인 귀신과 독자적 존재인 요괴를 총칭하는 용어로 기능했다. 아직 귀신과 요괴의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 '독갑이'는 초현실적 존재를 포괄하는 명칭이었고, 『매일신보』는 이 초현실적 존재나 현상, 경험을 초점화하여 괴담이라는 공포 서사의 범주를 마련하려 했다.

실제로 1927년 〈괴담〉란에 실린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부귀신, 우물귀신, 처녀귀신과 같은 사령이나 상사뱀, 도깨비불, 서낭나무, 나무 신령 등 신력을 지닌 존재들을 소재로 하여 전개된다. 불합리하고 초현실적인 존재의 경험은 '공포'라는 감각보다 〈괴담〉의 성격을 구획하는 데 더 주요하게 기능했다. 무서운 정서를 유발하지 않더라도 이야기가 귀신, 도깨비를 소재로 한 경우에는 〈괴담〉란에 게재될 수 있었다. 제사에 가르침을 주러 온 무해한 조상신(「제삿날밤」), 떡시루를 주고 가는 도깨비(「독갑이불」), 미인과의 해로라는 판타지를 실현해 준 도깨비(「괴담」)와 같이 공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다.

독자 원고를 모집해서 진행된 1930년의 〈괴기행각〉 시리즈는 "괴담, 괴담은 — 우리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긔한 생각과 괴긔한 힘과 괴긔한 동작으로써 구성된" 이야기라는 보다 진전된 진술을 통해 양식의 성격을 규정했다.

---

12) 孤帆生, 「괴담」, 『매일신보』, 1927. 8. 9., 3면.

> 괴담 괴담은 반듯이 한갓 이야기를 조와하고 심심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괴괴한 생각과 괴괴한 힘과 괴괴한 동작으로써 구성된 그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더 넓히고 우리의 호긔심을 더 일으키어 우리의 생활에 윤택을 주는 동시에 그 이야기가 가진 그 시대의 종교관이며 인생관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게 됩니다.[13]

'괴기'라는 새로운 용어는 '독갑이'라는 소재의 차원에서 나아가 '정상성을 벗어난 사고와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이야기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괴담'의 지평을 확장했다. 신출귀몰한 서양 탈옥수의 이야기(「신출귀몰한 탈옥」), 8개월 동안 두 번 출산했다는 여인의 일화(「만득의 어머니와 정체 몰을 그 아들」), 신혼방에서 살해된 아버지를 둔 떠돌이의 슬픈 사연(「봉루방 애화」)과 같은 이질적 스토리가 틈입할 수 있었던 것은 양식에 대한 이러한 확장된 정의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이 시리즈에서 귀신, 도깨비와 무관한 이야기는 위 세 편뿐이다. 수록 작품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초현실적 존재와 연관된 경험이었다. 목 잘린 신랑이라는 소재의 엽기성을 포함할 뿐 공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떠돌이 소년의 애화(「봉루방 애화」)를 끝으로 시리즈가 결국 마무리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 귀신 도깨비 이외의 영역에서 공포의 소재를 개발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던 듯하다.

그리하여 괴담이라는 한국의 공포양식은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문화의 요구가 귀신, 도깨비라는 초현실적 소재와 강고하게 결합하면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귀신과 도깨비의 존재론적 이질성은 일상의 감각을 전복하는 불안과 공포를 촉발할 수 있는 편리한 소재였다. 에로-그로라는 이질적인 문화취향이 호기심을 사로잡았으나 이를 충족할 만한 대상을 마땅히 찾기 어려웠던 조선의 현실에서, 초현실적 이물들의 이야기는 쾌락적 공포라는 생경한 대중문화의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출처였다.[14]

---

13) 「괴담 기담 대모집」, 『매일신보』, 1930. 9. 20., 5면. 모집 광고 안에서 '괴기'가 강조되었지만 여기서도 시리즈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어휘는 여전히 '괴담'이다.

14) 에로, 그로, 테로, 추로 특집에서 그로를 담당하게 된 한 기자가 "손바닥 가티 발ㅅ닥 뒤집힌 조선에 「그로」다운 그로가 잇슬택이 업다"고 불평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갓 유입된 그로테스크 취향이라는 대중문화의 낯설고 이질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재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중적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제재의 발굴은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개화와 계몽의 물결에 의해 그동안 배척되기만 했던 전통과 미신, 풍문과 속설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괴담'은 민속 안에 깊이 스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척되어 왔던 전래의 불합리한 풍문과 설화들을 공공화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민간의 정서와 감각들을 되살려냈다.

우물귀신, 과부귀신, 며느리귀신 등의 귀신 스토리나 구미호의 일화 등은 전통적인 종법적 가족제도가 만들어낸 여성 삶의 질곡을 함축했고, 엿 달라고 손 내미는 아동 귀신이나 쌀자루를 던지고 가는 도깨비 등의 이야기는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를 반영했다. 일상의 평화를 교란하는 귀신의 틈입과 도깨비의 장난을 통해 괴담들은 민중적 삶 속에 스며 있는 전통적 윤리의 질곡이나 가난과 고통의 원한들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매일신보』가 들추어낸 귀신과 도깨비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래된 '과거'의 감각에만 결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괴담〉과 〈괴기행각〉이 구성한 귀신과 도깨비 이야기의 곳곳에는 근대의 흔적들도 강하게 배어 있다.

참판댁 며느리의 원귀가 "전차 간 옆" 큰 집에 출몰하고(「흉가」), 목 없는 사내의 애달픈 원한은 그의 사연을 들었던 옛 헌병 보조원의 입을 통해 '자동차 운전수'들이 모여 앉은 봉루방에서 진행된다(「목 업는 사내」). 산을 넘는 나그네를 꾀어내는 도깨비집의 괴미인은 산을 뚫고 커다란 '신작로'가 건설된 고개에 출몰했다(「괴미인」). 기독교 목사나 장로의 아들이 괴기한 사건의 희생자 되기도 하고(「장로 집의 사탄」), 새로 부임한 '군수'의 딸이 무서운 이물의 목격자가 되기도 한다(「새쌀간 눈깔」). 시어머니의 박대에 목을 맨 며느리 귀신이나, 밤길 걷는 남자를 꾀어 죽음으로 이끄는 미인 도깨비와 같은 토속적 서사가 전개되는 곳곳에서 근대적 삶의 흔적들이 틈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 틈입한 근대 문물과 사상은 종종 토착의 신앙이나 신이한 존재에 의해 곤경을 치른다.

취향에 대해 논하는 한 좌담회에서 "지금 조선서 제일 괴기-그로한 게 무얼가?"라는 방인근의 질문에 채만식, 박노아는 "흉가 이야기"나 "독개비 귀신가튼 이야기"가 유일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이기도 했다. 「넌센스 본위—무제목 좌담회」, 『별건곤』 제36호, 1931. 1., 136-137면.

마을의 못된 부자가 서낭나무를 베려 하다가 나무의 신령에게 혼쭐이 난다거나(「나무귀신」), 서양 선교사가 조선 풍속을 무시하다가 아이가 나무에 매달리는 곤경을 겪고 나서야 스스로 제사를 치르게 되는 일화(「자정 뒤(하)」가 그런 예들이다. "귀신은 무엇이고 독갑이는 또 무엇이냐"라고 부르짖으며 "열렬하게 무신론을 주장"[15]하던 젊은 개화 학자가 집안을 어지럽히는 유사 귀신의 농간으로 여동생을 잃는 것과 같은 사례도(「원귀」) 근대적 변화에 맞선 기층민들의 저항감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스토리에서 서낭나무의 신령이나 귀신, 도깨비들은 근대화의 침투로 인해 훼손된 민속의 가치를 대신하는 객관물들이다. 실추되고 폄하된 조선의 민속은 귀신, 도깨비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 초현실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근대화라는 낯선 변화에 복수를 가했다. 개화라는 물신의 이름으로 민속을 파괴하고 익숙한 삶의 관습을 해치는 근대화의 위력에 맞서, 괴담들은 귀신과 도깨비의 존재를 실체화함으로써 주술적 존재의 효능과 저력을 입증하려 했다. 개화 지식인들이 역설해 왔던 계몽적 합리성을 위반하는 이 같은 스토리들은, 삶의 지반을 변형해 버린 근대에 대한 향유 계층의 저항감을 적나라하게 반영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노출하는 저항의 시선이 근대라는 시간성에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박대로 죽은 며느리 귀신(「흉가」, 「우물귀신」), 시댁을 뛰쳐나와 목을 매는 과부의 형상을 흉내 낸 도깨비와 요물들(「괴담」, 「괴미인」), 주인집 딸을 사모하다 죽어 뱀이 되는 머슴 총각들의 사무친 원한을 배후로 한 상사뱀 스토리(「원귀」, 「끔찍한 죽음을 한 김선달네 막네딸」) 등은 재래의 종법적 가족윤리에서 빚어진 고통과 원한을 표상하면서, 강고한 인습에 대한 기층 민중의 저항감을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뱀과 귀신은 가문 중심적 혼인제도나 신분제의 모순에 대한 하위 주체들의 저항 의지를 표상하고, 그에 대한 기층 민중의 공감과 연민을 실체화한 형상에 다름 아니었다.

개발의 폐해와 민속의 파괴를 문제시함으로써 근대에의 저항을 드러내는

15) 낙천생, 「원귀」, 『매일신보』, 1927. 8. 16., 3면.

사례나, 가문 중심적 혼인제도의 모순을 들추어냄으로써 인습에의 저항을 드러내는 사례들은, 이야기 향유층이 근대와 전근대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순응할 수 없었음을 확인해 준다. 개화에 의해 파괴된 민속도 문제였고, 개화 속에도 연속되었던 인습도 문제였다. 조선의 전통과 개화된 현실은 서로 다른 문제들을 함유하면서 기층 민중의 생활 속에 제각각의 불행과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매일신보』의 괴담란은 현재에 反하여 과거를 승인하는 양식도, 과거에 反하여 현재를 승인하는 양식도 아니었다. 근대와 전근대에 대한 양가적 저항감 속에서, 괴담은 체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기층 민중의 박탈된 처지와 신고의 삶을 노출했다.

이는 양식의 출발 지점에서 코너의 기획자들이 이야기 향유층과 수평적인 시선을 유지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괴담〉(1927)과 〈괴기행각〉(1930) 시리즈의 기획자들은 기자 가족과 독자 대중을 양식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포용했다. 에피소드들은 투고자의 이름을 달고 발표되었으며, '나의 체험담',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 등의 서두로 시작했다. 또, 수록 작품들은 스토리의 응집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느슨한 서술과 단순한 언문체로 장식 없이 진행되었다. 이야기의 발화층과 수신층의 간격을 지우는 이 같은 담론의 기획 속에서 『매일신보』 괴담란은 세속의 속설과 감각들을 여과 없이 담아냈다. 귀신과 도깨비의 이야기들이 사회 모순을 들추어내고 가시화함으로써 기층 민중의 박탈된 삶과 고통을 피력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수집된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기록하는 미디어의 수평적 시선에 의해 가능했다.

미디어의 수평적 시선은 귀신, 도깨비라는 초현실적 존재의 사실성에 대한 입장을 확립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독갑이가 잇느냐? 업느냐? 이것은 학자들이나 ᄉᆡᆼ각할 문제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했던 '괴담'은 사실성에 대한 탐색을 접어둔 채 "흥미"만을 충족하는 양식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흥미 추구의 욕망은 역으로 근대 교육을 수혜한 식자층들이 계몽주의적 합리성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주술적인 감각과 느낌들을 발설하는 공간으로 괴담의 자리를 정체화하기도 했다. 『매일신보』 괴담란에는 떠도는 풍문의 귀신담만 실린 것이 아니었다. 신문을 읽고 투고할 수 있

는 문식력을 지녔던 지식인 독자들은 근대 교육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릴 수 없었던 불합리한 경험과 감각들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기독교 장로의 아들이었던 '나'가 새집으로 이사갔다가 요물의 요기를 느껴 까무라치고 아내가 자살하는 등의 괴사건을 겪었다거나(「장로 집의 사탄」), 군수의 부인이었던 '나'가 새집에서 새빨간 눈이 노려보는 느낌에 두려워 떨다가 남편이 죽고서야 이사를 했다는 일화(「새빨간 눈깔」)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어릴 적 오가던 길에서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를 만났고 이를 본 친구가 죽었다거나(「내가 겪은 일」), 함께 수학하던 친구가 자신을 사모하던 처녀 귀신에 홀려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했다는 일화(「수동이의 죽엄」) 등 〈괴기행각〉란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 청년들이 경험한 요물의 기록들이 적지 않았다. 사후의 유령이나 주술적 존재는 계몽주의에 입각한 근대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공포의 감각을 들추어내는 데 집중했던 '괴담'란에서만큼은 지식인 독자조차도 불합리한 존재에 대한 감각이나 경험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같은 서사에서 붉은 눈, 검은 형체 등의 이물들은 인간사의 무언가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타포라기보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들추어내는 공포의 실체에 가깝다. 주술에 의거하여 과학을 부정할 수도, 과학에 의해 주술을 부정할 수도 없는 모순적인 감성의 지평 위에서, 괴담은 그렇게 현실의 상징질서를 뚫고 부상하는 원초적 공포들을 들추어냈다.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근대적 신념을 부정하는 이 감각들은 어떠한 결론도 생성하지 못한 채, "이성의 규칙에 대한 믿음과 이성을 벗어난 잉여"[16] 사이를 진동했다.

귀신, 도깨비와 같은 민속적 소재들을 끌어와 공포를 쾌락으로 치환하는 서사 양식을 확립하는 가운데, 『매일신보』의 괴담들은 그렇게 인간 내부의 존재론적 동요와 불안을 봉합 없이 노출하고 가시화했다. 현실의 가치 질서에 의해 해소되지 않으며, 어떠한 법과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 미결정의 공포는 근대 교육과 이성이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던 상징질서의 구멍들을 들추어내면서, 근대의 약속 안에 숨은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었다.

16) 김소영, 『근대성의 유령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0, 20면.

3. 민족 知의 위계화와 공포의 타자화

식민지 조선 공포서사의 성립과정에서 볼 때, 1930년대 중반은 형성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비현실적 존재나 체험에 대한 미결정의 혼란과 불안의 요소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가 모색되고, 전래 이야기로서 '괴담'의 양식적 특성을 설명하는 나름의 준거가 마련되는 시기였다. 『조선일보』의 괴담들은 이 같은 형성기 괴담의 변화 과정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1930년대 『조선일보』의 괴담은 3차례의 시리즈를 통해 전개되었다. 1933년의 〈일요특집〉 괴담 시리즈, 같은 해의 〈거리의 괴담〉 시리즈, 1939년의 〈연속괴담〉 시리즈가 그것이다.

민족 신문이 오락적 서사인 '괴담'에 관심을 보인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는 문식력이 발달하고 독서층이 급증했던 시기였다. 우가키 총독의 내선융화 정책은 정치성을 배제한 인쇄물을 증가시키면서, 대중문화의 형성을 촉진하고, 모던한 취향을 지향하는 취미 오락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사회주의 활동이 탄압되고 민족 언론이 사회주의자들 중심에서 문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17] 언론 출판계의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화 경향도 증대했다. 판매 부수를 증가시킬 독자층의 확대와 광고 수입이라는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 독자의 확보가 시급했다. 이러한 매체의 요구에 쉽게 접합할 수 있었던 것이 재미있고 읽기 쉬운 야담이었고, 괴담은 야담과 접속하면서 전래의 귀신·이물담을 특화시켜 나갔다.

괴담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야담이 근대적 취미와 접속하는 유의미한 통로의 하나이기도 했다. 1927년 아래로부터의 역사 알기라는 민중 교화운동의 형태로 출발했던 야담 운동은 그 대중적 성공 때문에 오히려 구속과 검열의 압력을 받았다. 1930년대 야담이 흥미 위주의 오락적 서사물로 변모한 것은 부흥하는 상업주의와 정치적 장애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총독부의 검열과 언론 출판계의 상업주의라는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담은 문식력이 낮은 하위

17)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 155-157면.

계층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력한 오락거리로 부상했다. '괴담'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통한 민중교화 운동에서 출발한 야담이 자극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외래의 오락 기호와 결합한 변종의 하나로서 공고화되기도 했던 셈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괴담은, 조선의 전통을 제대로 앎으로써 조선의 독자성을 파악하자는 문화론적 차원에서의 민족 운동과도 연동되어 있었다. 최남선의 연구와 『개벽』의 조선문화 기본조사운동 등을[18] 계승한 조선학 운동은 정치적 발언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중반의 상황에서 민족언론의 열정이 수렴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통로였다. 1934년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사장을 지냈던 안재홍은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문화의 특색, 조선의 독자한 전통을 천명하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 조선학을 정의했다. 식민 당국의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탐구는 "조선인의 견지에 서서" "고유한 것"을 주창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였다.[19] 『조선일보』가 「계월향」과 같은 영웅형 야담(1927-1928)을 비롯하여 〈내 고장의 전설〉 시리즈(1927-1930), 〈史外異聞〉(1933. 12.)과 같은 야사 시리즈를 꾸준히 연재한 것은 민족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의식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한 민족 언론다운 노력의 일환이었다.

1933년 8월에 실린 〈거리의 괴담〉 시리즈는 이 같은 민족 知에 대한 관심과 오락적 野史의 요구, 그로테스크 취향에 대한 호기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코너였다.

〈거리의 괴담〉에서 야담 운동의 영향은 연재 1회를 '제 일야'라고 명명한 데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곤 했던 야담 대회의 기사화 방식이 괴담의 연재 방식에도 또렷이 새겨진 셈이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 시리즈는 야담의 소재가 되는 전통 이야기와 근대적 취향을 흥미롭게 결합시켰다. 1933년 〈거리의 괴담〉에 실린 시리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8)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조사와 조선문화인식」 『역사교육』 제148집, 역사교육연구회, 2018, 227-256면.

19) 「조선 연구의 기운에 제하야(二)」, 『동아일보』, 1934. 9. 12.

	발표일자	저자	코너명	제목	내용
1	1933.8.7.	R기자	거리의 괴담(1)	『戶曹다리』 소복처녀, 대회일야 다리위에 나타난 괴기, 『쩟다바라』 쟁이의 식겁	떳다바라군 김춘삼이 호조다리 밑에서 갑자기 나타난 처녀를 따라가 함께 묵는다.
2	1933.8.8.	R기자	거리의 괴담(2)	금침중에 운우몽, 깨고보니 적시누루, 처녀귀신에게 왼밤 홀리어 『쩟다바라』 꾼 식겁편	처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잠에서 깨어 보니 열병으로 죽은 가족들의 시체가 널린 집이었다.
3	1933.8.10.	L기자	거리의 괴담(3)	斫殺된 대사의 음해, 명문도 일조에 폐허, 집터도 빼앗아 약물터로 만들어 인왕산 녹인하천 내력	숙종 시절 재상 허적은 담력이 세고 의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아들 허견이 집터의 구렁이를 죽인 탓에 저주를 받아 집안이 망했다.
4	1933.8.11.	×	거리의 괴담(4)	초례청에 신부는 현몽하던 괴요녀, 요부의 방자질로 삼족이 진멸. 계동홍수렛골 유래	홍술해의 아버지 홍계희가 악몽을 꾸고 꿈속에서 본 얼굴을 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더니, 왕실에 대한 방자질로 집안을 망하게 했다.
5	1933.8.12.	×	거리의 괴담(5)	소년급제 쌍동이 과거 당일에 변사. 괴! 애자 참상을 목전에 보고 가가대소의 친부정염	정북창의 쌍둥이 아들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면서 문지방에서 넘어져 죽으니 정북창이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시구문 밖으로 내다 버리게 했다.
6	1933.8.13.	×	거리의 괴담(6)	보복차로 태어난 전생의 철천 원수. 7대 전생을 거슬러 보았다는 이인 鄭렴옹의 천리안	하인들이 밤에 가 보니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되살아난 시체들이 복수의 어려움을 한탄했고, 정북창은 그들이 전생에 죽였던 중국 아전들의 환생임을 밝힌다.

〈표1〉 1933년 〈거리의 괴담〉 시리즈의 주요 내용.

기자의 취재 형식으로 진행된 이 시리즈는 호조다리(1-2화), 사직골 인하천(3화), 계동 홍수렛골(4화), 시구문 밖(5-6화)이라는 경성의 익숙한 공간들에 얽혀 있는 괴기한 옛 이야기들을 기술했다. 수록된 이야기들은 귀신의 유혹(1-2화), 구렁이의 저주(3화), 예지몽(4화), 악한 자의 환생을 꿰뚫어보는 혜안(5-6화) 등의 신이하고 무서운 현상들을 담았다. 경성의 거리 공간에 얽혀 있는 전설들을 되살려서 근대화된 현재와 전통의 기억을 혼융한 이 기획의 혼종성은 시리즈의 제목을 안내하는 도안들과 이미지의 배치 안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난다. 편집진들은 6회의 짧은 특집을 게재하면서 다섯 번이나 제목의 도안을 바꾸는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그림1〉 〈거리의 괴담〉 2, 1933. 8. 8.



〈그림2〉 〈거리의 괴담〉 3, 1933. 8. 10.



〈그림3〉 〈거리의 괴담〉 4, 1933. 8. 11.



〈그림4〉 〈거리의 괴담〉 6, 1933. 8. 13.

깜짝 놀라는 신사, 벌거벗은 여인과 뱀, 너덜너덜한 옷가지와 일그러진 얼굴의 유령 등의 이미지는 추와 에로스, 기괴성을 시각화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 징그러움과 추악함, 머리가 쭈뼛하는 공포, 나체의 충격 등을 표현하는 이미지 조합은 당시 유행하던 에로-그로 기호의 반영이다. "치마 끗자락 아래로 발 잇는 짬이 아모리 봐도 잘 보이지 안는다"[20]라는 식으로 무각유령의 관념을 모방한 귀신의 묘사나[21] "요지음 말로 옴길 것 가트면 『에로-그로』의 련합 공격을 당한 춘삼이"[22]와 같은 구절들 또한 유행하는 첨단의 감각을 극대화하려 했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깨끗하게 정돈된 주택가와 전신주가 늘어선 거리는 일그러진 얼굴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흉악한 귀신의 형상들과 현격한 거리를 이루며, 시대의 변화를 절감하게 한다(〈3〉, 〈4〉). 신작로가 난 정돈된 현대식 길과 머리를 쭈뼛하며 놀라는 신사의 모습은 "금침중에 운우몽"이라는 고담의 문구와 대조를 이루며 근대가 감추고 억눌렀던 과거의 에너지를 시각화한다(〈1〉).

그러나 시리즈의 제목을 안내하는 이 도안과 이미지들은 고담을 다룬 수록 내용과 현격한 거리가 있었다. 괴담을 안내하는 삽화들은 수록된 서사와 접속하지 못했다. 「『떳다봐라 군』 식겁편」(〈1〉)에는 삽화의 신사가 등장하지 않으며, 「인왕산변 인하천 내력」에는 〈2〉의 삽화와 같은 나체 여인의 흔적이 없다. 「계동 홍수레골 유래」(〈3〉)에서 공포의 소재는 허수아비 유령이 아니라 꿈속에 나타난 요녀였고, 「이인 정렴옹의 천리안」(〈4〉)에서 공포의 대상은 환생한 2인의 늙은 악한으로 삽화에 등장하는 네글리제를 입은 여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용과 이미지의 불일치는 괴담 기획자들의 의도와 실제의 간극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공간의 동질성을 토대로 하여 조선의 전통과 근대화된 현재의 차이를 기괴와 공포라는 첨단의 감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기획진의 의도는

---

20) 연재 첫 회에서 다리 밑에서 나타난 여인이 귀신이라는 사실은 이 묘사를 통해 확정된다. R기자, 「거리의 괴담(1): 『떳다바라』꾼 식겁편」, 『조선일보』, 1933. 8. 7., 2면.

21) 이 시기 일본의 무각유령을 모방하여 한국의 귀신 형상이 일반화되고 있었음은 이주라의 앞의 글, 2015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2) R기자, 「거리의 괴담(2): 『떳다바라』꾼 식겁편」, 『조선일보』, 1933. 8. 8., 2면.

시각적인 배치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획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서사화할 수 있는 언술의 자리를 『조선일보』의 기획진은 찾아낼 수 없었던 듯하다.

실제로 〈거리의 괴담〉이 소개하는 전설들은 해당 지역에 떠돌던 민간의 이야기를 옮긴 탓인지 초점이 불분명했다. 소개하는 스토리들은 파편적이고 불균형했다. 숙종 시절의 사화, 장헌세자의 죽음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집안에서 벌어진 멸문의 禍가 저주, 방자, 현몽 등의 초현실적 모티프와 연동되지만, 스토리는 일관된 맥락이나 응집력을 결여한 채 잡다한 일화들의 접합으로 제시된다.[23] 따라서 코너는 현재의 공간과 과거의 기억을 접속함으로써 장소의 전통과 유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소속감과 연대의식의 실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구심점의 형성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응집력이 희박한 서사, 내용과 이미지의 불일치 등은 이 괴담의 기획이 내포했던 정서의 충돌과 불안정성을 가감 없이 노출했다. 그로테스크의 감각과 쾌락적 공포라는 현재적 관심사와 초현실적 모티프에 근거한 전래 이야기의 결합은 그렇게 불안정했다. 『매일신보』가 제기했던 저 미결정의 불안이 공포의 쾌락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귀신, 저주와 같은 초현실적 공포의 요소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접합하고 부딪히며 갈등과 균열을 얻고 그러면서도 거리화되는 데서 발발하는 쾌락의 자리를 찾는 일은 그렇게 요원했다.

이 거리화와 안정감은 시간성의 타자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거리의 괴담〉이 보여주는 불안정성은 같은 해 마련된 〈일요특집 괴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된 형태로 나타나며, 1939년의 〈연속괴담〉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일요특집 괴담〉과 〈연속괴담〉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의 세계를 현재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 과거의 시간성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

23) 같은 인물의 민중성, 영웅성과 저주가 맥락 없이 연속되거나(「인왕산변 인하천 내력」), 예지몽의 여인이 현명한 자질를 발휘하다가 방자라는 비극을 맥락 없이 초래하는 등(「계동 홍수레골 유래」)의 예가 그것이다.

	발표일자	저자	코너명	제목	내용
1	1933.5.1.	柳八克	일요특집 괴담	병풍 뒤의 얼굴	김서방이 곽서방 아내의 시신을 지키는데, 병풍 뒤에서 죽은 여인의 귀신이 일어나 위협하나 실은 도둑의 장난이었다.
2	1933.5.1.	金秉坤	일요특집 괴담	붉은 당기	억울하게 죽은 밀양 부사의 딸이 귀신으로 나타나 선비를 해친다.
3	1933.5.1.	방인근	일요특집 괴담	영보와 괴처녀	영보가 향교에서 들리는 이상한 예언을 극복하기 위해 산을 넘었다가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영의정이 된다.
4	1939. 7.27.-8.1.	신정언	연속괴담	홍두흑두	길씨가 신혼방에 나타난 이물의 공포를 婦德을 되새기며 견디다가 구슬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되고 죽어서 승천한다.
5	1939. 8.3-8.	신정언	연속괴담	여인여귀	마을의 하인, 장사, 거지, 상여꾼 등을 거쳐 시체의 옷을 벗겨 팔아먹던 곽돌이 무덤에서 살아난 여인과 같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 여우였다.
6	1939. 8.9-19.	신정언	연속괴담	설상포의미인	유명한 오입장이 황진사가 철원의 田莊에서 밤마다 여귀의 방문을 받고 피하다가 장래에 조심할 것을 경고 받으나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힌다.
7	1939. 8.31.-9.6.	신정언	연속괴담	홍촉십쌍	남산골 돌다리 밑에 부모 없는 열 명의 총각이 끈목을 짜고 글공부를 하며 지내다가, 동대문 누각에 목맨 처녀를 구한 인연으로 안평대군이 남긴 열 명의 궁녀들과 혼인하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나, 모두 귀신에 홀린 것이었다.
8	1939. 9.15-17.	신정언	연속괴담	소오와 시오	정몽주가 산을 넘는 여우들을 보고 고려의 멸망을 예견하는데, 과연 도성에 괴상한 무당들이 설치어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더니 무당들이 이방원에게 시절의 변화를 예고하고 여우로 변해 사라졌다.

〈표2〉 〈일요특집 괴담〉과 〈연속괴담〉의 주요 내용.

〈일요특집 괴담〉과 〈연속괴담〉은 〈거리의 괴담〉과 달리 현재라는 시간성으로부터 현격히 멀어졌다. 이야기의 시공간은 대체로 먼 과거로 설정되어 있고, 특히 초현실적인 존재나 사건은 철저히 과거에 귀속되어 있다. 1933년의 〈일요특집〉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여귀의 통한과 살인담(「붉은 당기」), 여귀의 소원을 풀어주고 영의정에 오르는 청년의 모험담(「영보와 괴처녀」) 등을 다루었다. 시간적 배경이 분명치 않은 「병풍 뒤의 얼굴」의 경우에는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귀신을 흉내 낸 도둑의 장난질을 공포의 소재로 삼았다. 1939년에 발표된 〈연속괴담〉에서는 삽화나 문체, 인물의 성격 등에서 옛스러움이 더욱 강조된다. 여우의 조화를 통해 왕조의 멸망을 예견하는 정포은(「소오와 시오」)과 같은 역사적 인물의 일화는 물론, 괴물 같은 구렁이 총각의 방문을

부덕(婦德)으로 이겨내는 새신부 이야기(「홍두흑두」),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의 유혹을 견디는 난봉꾼 이야기(「설상포의 미인), 한밤중에 동대문 누각에서 목매던 여인을 따라간 덕에 안평대군의 옛 궁녀 귀신들과 혼인하게 되는 가난한 총각들 이야기(「홍촉십쌍」), 무덤에서 살아난 여우 귀신과 결혼한 묘지 도둑 이야기(「여인여귀」) 등등 서사 속 초현실적 존재와 경험들은 더욱 고풍스러워진다. 인물의 성격이나 신분이 재래적인 것은 물론, 공포감을 시각화하기 위해 삽입된 삽화 또한 초가와 한복, 댕기, 비녀, 망건, 행채머리 등을 동반하여 옛스러움을 강조했다. 소재와 문체, 경험의 성격과 메시지 또한 현저히 고풍적이다.

괴담의 스토리가 이처럼 과거화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초현실적 경험에 대한 거리화 욕망의 결과이다. 발생 초기부터 괴담은 늘 과학적 해석의 욕망과 갈등해야 했다. 합리적인 근대 知의 관점에서 귀신과 도깨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계몽지식인들은 『매일신보』 괴담란이 보여준 것과 같은 미결정의 공포를 지속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근대 교육을 습득한 계몽지식인들에게는 초현실적 존재와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다. 「병풍 뒤의 얼굴」과 같이 귀신 경험에 과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증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실 '그로' 유행의 초창기부터 대중 미디어에서는 정신의학, 심령학 등 초현실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들이 등장했고, 괴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그 자체로 흥미의 대상이기도 했다.[24]

근대 지식의 헤게모니 아래서 과학적 해석의 욕망은 '괴담'이라는 양식이 자리 잡아 갈수록 더욱 강해졌다. 「병풍 뒤의 얼굴」이 그랬던 것처럼 1936년 『매일신보』에 실린 특집 괴담란에 실린 세 편의 괴담들도 과거와는 달리,[25] 과학적 해명에 무게를 두었다. 도깨비불이 날아다니고 송장이 일어나는 괴사건이 도둑들의 소행으로 밝혀진다거나(「괴화」), 묘지를 파헤치는 며느리의 행적이 정신병의 결과였음이 드러나는 등(「묘지이변」)이 그것이다. 이 시기 『매일신보』의 괴담 특집은, 『조선일보』에 실린 「병풍 뒤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24) 실제로 1930년 전후 『별건곤』에는 정신의학, 심령학 등을 '괴기' 현상으로 소개하는 기사들이 다수 실렸다.

25) 『매일신보』 괴담들이 주술과 과학의 긴장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서는 김지영의 앞의 글, 2019b 참조.

중심에서는 공포감을 조장하고 말미에서 과학적 결론을 배치하는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었다. 총 3편의 이야기 가운데 2편이 과학적 해석으로 귀결되는 이야기 구조는 1927년, 1930년의 저 '괴담' 시리즈와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26]

괴담의 과거화는 이처럼 매체를 넘나들며 강화되는 근대적 해석의 욕망에 비례했다. 현실이 논리화되고 과학화될수록 귀신, 이물과 같은 이질적 존재의 체험은 사실로서 인정되기 어려웠고, 설명할 수 없는 미혹의 세계는 과거의 차원으로 밀어 넣어짐으로써 지식 주체들의 안정감을 회복시켰다. 그런 점에서 괴담이 전근대의 시간성과 밀착한 것은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현재의 것으로 전유하고 불합리, 부조리한 것을 과거에 투사하는 근대 지의 자기 합리화 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괴담이 과거화되어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불합리한 존재나 체험은 주체의 현존으로부터 거리화되고, 이야기의 향유자는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근대와 미혹의 세계는 그렇게 불합리한 감각을 과거적인 것으로 투사하는 의식의 작용을 통해 분리되었다. 괴담과 전통의 결합은 양식이 보편화될수록 더욱 강고해져 갔다. 귀신 도깨비와 관련된 민족 知는 과거의 것, 미개한 것, 하위계층의 것으로 타자화됨으로써 공포 양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간 것이다.

1936년 『조광』의 '괴담' 「붉은 구실」의 서두에서 야담가 신정언이 밝힌 '괴담'에 대한 설명은 이 같은 타자화의 논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준다. 이 서언은 1939년 『조선일보』 〈연속괴담〉 시리즈의 1화 「홍두흑두」(내용은 「붉은 구실」과 거의 같다)의 서두에도 반복해 실렸는데, 야담, 괴담을 전파하는 당대 선도적 주체의 목소리를 통해 서사 양식의 하나로서 '괴담'의 정체성을 설명한 언술로 주목된다.

---

26) 1937-1938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최남선의 「괴담」 시리즈도 동일한 맥락 위에 놓인다. 이 「괴담」 시리즈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조선 전래의 고전에 있는 괴기한 이야기들을 학문적, 논리적으로 해석한 장기 연재물이다. 오락적 흥미를 목적으로 했던 다른 괴담들과 달리 본격적인 학술적 태도로 집필되었던 이 시리즈에서 역시 괴담은 신화, 전설이라는 옛 시대의 산물로 고착화되고 있다. 괴담에 대한 최남선의 학술적 탐구 역시 이물에 대한 감각을 과거화한다는 점에서는 『매일신보』나 『조선일보』의 다른 괴담들과 동궤에 있는 지식-담론의 흐름 속에 놓이는 셈이다.

>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 사이에 사람을 비롯하야 산천초목, 비금주수가 가추가추 생기었다. / 그런데 이중에는 귀신도 생기었고 독갑이도 생긴 것이 과연코 참이었든가. / 귀신중에도 가지각색. 독갑이중에도 역시 천층만층이라하면 더더구나 괴이타 아니할수없는일이었다. / 그러나 인류의 태초의 문화는 귀신으로부터 시작되지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오직종교간의 말만편벽되이 믿어 그것을 뒤도장을찍는 말이아니오 그밖에력사가(歷史家) 로서 소위 신화시대(神話時代)의 문물(文物)을 말하는 것이 분명있거니 그것을 다만 귀전으로만 들어 흘릴말이라 못할 것이다. / 그러면 귀신도 독갑이도 이천지만물의 일종으로 끼어서 인류문화와 직접간접의관계가 있다는 것을 코웃음치고 버릴말도 아니라 할수밖에 없다. (…) / 도대체로 귀신이라하고 독갑이라 하는 것은 본사람은없고 그런말을 들은사람은많으니 이세상은 본것만을 믿는세상이오 들은 것은 믿을 수없는 세상이라하면 귀신과 독갑이는 여러말 할것없이 분명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이 괴담(怪譚)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지못하고 흔이 들을수만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나 그중에는 반듯이 어떠한 뜻이 잠겨있는 것 마는 무심히 듣고 넘길수 없는 것이다.[27]

신정언이 괴담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귀신과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일이었다. 신이한 이야기를 무수히 다루었던 야담가 신정언이 이 난제의 해결을 의존한 준거는 시간성이었다. 그에 따르면 "귀신과 독갑이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분명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존재는 "역사가"가 '말하'는 "신화시대의 문물"에는 살아 있다. 즉 이 야담가는 역사적 과거에 바탕을 둔 '서사적 존재'로 타자화함으로써 초현실적 이물들의 비현실성과 현존성이 공존할 수 있는 논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귀신과 도깨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 과거라는 시간성의 역전을 통해서만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대상으로 못박힌 셈이다.

동일한 논리를 그는 시각성이라는 근대적 감각과 '청각성+서사성(구비양식의)'이라는 전근대적 감각의 분별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귀신과 도깨비를 "사람이 보지 못하고 흔이 들을 수만 있는 그것" 즉, 실존하지 않으나 이야기로만 전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된 "그것" 즉, 귀신 도깨비를 "말하는 것"으로 '괴담'을 정의한 것이다.

---

27) 신정언, 「괴담 붉은 구실」, 『조광』, 1936. 10., 188-189면.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만 있는 것'의 독특한 자리, 그것은 재현물로서 환상 양식이 존재하는 자리에 다름 아니다. 시각을 감각의 중심에 두는 근대성의 관점에서는 보이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며, 실증적인 과학과 지식은 보는 능력을 토대로 가능해진다.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만 있다는 비가시성의 선언은 주체로부터 미끄러져나가며 완전히 포획되지 않는 영역의 자리로 괴담의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포획되지 않는 미끄러짐을 과거라는 시간성 속에 가두어냄으로써 괴담의 언술 주체들은 존재의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귀신과 도깨비들은 이야기에서만 존재하는("들을 수만 있는") '과거의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식민지 근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자리를 획득했다. 그리고 괴담은 이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존재들을 '신화시대'라는 과거성에 의존하여 가시화하여 언술하는 양식으로 자리 잡아갔다. 신화시대라는 시간성과 비가시적 존재의 가시화라는 방법론을 통해[28] '괴담'은 계몽적인 근대 지식 위에 구축된 합리와 불합리의 과학적 경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식민지 근대에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양식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핵심 소재가 타자화될 때, 그와 같은 소재들에 생명을 부여하는 서사의 양식도 함께 주변화되었다. 불합리한 존재를 언술하는 괴담은 낮은 수준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심급의 서사물 이상이기 어려웠다.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괴담은 야담의 일종과 같이 다루어지고, 민속 전문가나 문인지식인들에 의해 쉽고 친근한 하향적인 언술로 기술된다.[29] 불합리한 존재들을 언술하는 괴담 서사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훈성'이 강조되었다. "그중에는 반듯이 어떤 뜻이 잠겨 있"다는 신정언의 주장에서 보듯, 괴담은 다시 권선징악의 윤리적 세계로 전진했다.

---

28) 이와 같은 신정언의 정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의 세계와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속하는 초자연적 세계의 경계가 문화 내에 확고하게 설정되어야만 환상 장르가 가능하다는 서구 환상 장르의 정의를 흥미롭게도 충족시킨다. 폴 윌먼에 따르면 "장르로서의 판타지 영화가 존재하려면, 검증 가능한 과정에 의해 작동하는 '실재 세계와, 이성 및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것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건들이 속하는 초자연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문화 전체 내에 확고하게 설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김소영, 앞의 책, 19면.

29) 이는 『조선일보』의 〈연속괴담〉이나 『조광』의 '괴담', 『야담』, 『월간야담』에 '괴담'의 타이틀을 달고 실린 작품들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이다.

괴담의 성격이 어느 정도 공고해진 1939년의 『조선일보』 〈연속괴담〉에서는 특히 윤리적인 주제들이 강조되어 있다. 부덕을 지킨 여인의 행복과 승천(「홍두흑두」), 성실한 노동을 기피하고 도둑질과 편법만을 취해온 악한에게 주어진 여우 귀신의 훈계(「여인여귀」), "사람을 너무 의심하고 사람의 말을 생각지 안흔 죄"[30]로 감옥에 갇히게 된 한량의 불행한 종말(「설상포의 미인」),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의좋은 총각들에게 내린 며칠 밤의 환상적인 행복(「홍촉십쌍」) 등 이야기들은 귀신, 요괴라는 소재를 활용하며서도 선한 자의 행복과 악한 자의 불행을 강조했다.

이처럼 스토리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시선에서 진행되는 안정된 교훈담으로 변하면서 괴담이 출발 지점에서 지녔던 불안과 공포의 감각은 적지 않게 후퇴했다. 윤리적인 주제의식 아래, 귀신과 여우, 구렁이 총각으로 현신한 용과 같은 이물들은 인간의 삶을 훈계하거나 조력하는 존재로 기능하게 된다. 초현실적 존재의 이질감이 강조되어 있지만, 안전한 현재로부터의 거리만큼 공포의 즐거움은 약해졌다. 공포의 감각이 둔해지고 귀신과 이물들이 과거의 존재로 거리화되며 이야기가 해묵은 윤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괴담은 봉건의 시간대에 사로잡힌 서사, 낙후된 과거의 표상으로 변화했다. 괴담이 조장하는 불합리한 감각과 미혹됨은 이제 '옛 것'과 동질화되면서, 근대의 진보적 시간대 위에 안착한 셈이다.

식민지 조선의 괴담 문화는 이처럼 우월한 근대의 입지를 확보하는 수직적인 시선 속에서 과거를 타자화하고 괴물화했다. 내부에 있는 이질성을 외부적인 것으로 투사하는 전형적인 회피의 전략에 의해 귀신과 도깨비는 그렇게 선형적인 시간성의 회로 내에 안착하고, 괴담은 이제 근대적 삶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민속의 일부로 정착해 갔다. 괴담은 민속학적 지식이 해박한 지식인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하위 주체들을 대상으로 전래의 이물 이야기들을 통해 윤리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수직적 언술 양식으로 굳어간 것이다. 이는 불합리/부조리를 '과거'에 투사해 버림으로써 현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근대 知의 운동의 결과였다.

30) 신정언, 「연속괴담, 설상포의 미인」, 『조선일보』, 1939. 8. 19.

4. 타자화된 인간과 숭고화된 공포

조선에서 최초의 창작 괴기소설이 등장한 것은 '괴담'이 과거를 무대로 한 귀신·도깨비 이야기로 확립되어갈 무렵이다. 1937년, 일본에서 갓 귀국한 젊은 신인 김내성은 『조광』에 괴기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창작소설 「광상시인」을 발표했다. 「광상시인」이 발표된 『조광』은 『별건곤』, 『삼천리』를 잇고 『신동아』, 『중앙』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935년에 창간된 종합지로, "거대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상업주의적 태도로 기획"[31]된 잡지였다. 조선 사람의 '상식'의 결핍을 지적하고 "상식조선의 아츰햇빛(朝光)이 되기를 自期"[32]하면서 출발한 『조광』은, 시사논평과 부인독물, 각종 모던 생활 강좌, 과학 상식, 연예 뉴스 등 잡다한 소식들을 위계 없이 병렬하는 균등한 체계를 구성함으로써[33] 다양한 독자의 포용을 시도했다. 「광상시인」이 발표된 1937-1938년은 『조광』이 본격 문학 작품과 야담, 상식을 위계 없이 망라하는 체제 안에서도 '괴기'라는 어휘가 소제목 안에 특히 자주 등장하는 변화를 보인 시기였다.

그때까지 『조광』에서 '괴담'의 타이틀로 발표된 기사나 작품은 1936년 신정언의 「붉은 구실」과 같은 해 발표된 차상찬의 「여승혼」 두 편 정도였다. 낮은 수준의 문식력을 지닌 독자들을 겨냥한 전래의 이야기는 대부분 '야담'의 타이틀로 발표되었고, 야담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를 특화한 '괴담'을 변별하는 데 『조광』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광』은 '괴기'라는 타이틀의 기획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발표일자	저자	제목	내용
1	1937.7.	취운생	조선 괴기 인물전	병자호란 시기, 털로 뒤덮인 난장이 형상의 괴인 이근이 기괴한 용모로 인해 오랑캐의 수중에 잡히고도 괴물 같은 기인을 함부로 죽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놓여나 모자 상봉하고 장수한다.

31) 정혜영, 「1930년대 종합대중잡지와 '대중적 공유성'의 의미—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39-155면.
32) 「창간을 제하야」, 『조광』, 1935. 11. 1., 33면.
33) 최수일, 「잡지 『조광』의 목차, 독법, 세계관」, 『상허학보』 제40집, 상허학회, 2014, 113-145면.

2	1937.8	차상찬	괴기인 최칠칠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은 기행을 일삼은 인물이었다.
3	1937.8	차상찬, 유추강, 신정언, 함대훈, 노자영, 현인규	괴기 좌담회	참석자들이 도깨비, 귀신, 구렁이, 산 송장, 둔갑한 여우 등 조선에 전래하는 괴이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 의미나 진위 여부를 논한다.
4	1937.9	김내성	괴기소설 광상시인	시인 추암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와 연애 행각을 벌인다.
5	1938.7	안회남, 차상찬, 방인근, 김동인, 박노갑, 이석훈	괴기 체험기	안회남은 고질병인 몽마, 차상찬은 괴미인, 방인근은 怪奇千方, 김동인은 5일간의 혼수상태, 박노갑은 5-6년 전 마을에서 들려온 괴상한 소리와 도둑 사건의 경험, 이석훈은 기자 시절 정탐한 에테르 약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기술한다.
6	1939.2	주요섭	괴기소설 낙랑고분의 비밀	낙랑 고분 속 비밀의 동굴에서 不死의 여인이 죽음을 희구하며 환생한 연인을 찾아 연쇄 실종 사건을 일으킨다.

〈표3〉『조광』에 발표된 '괴기' 타이틀 기사(작품)의 주요 내용.

'괴기 인물전', '괴기 좌담회', '괴기 체험기' 등 다수의 필진이 참여한 기획 특집을 마련하면서, 『조광』은 '괴기'라는 첨단의 감각을 표방하고 재현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는 이 시기 잡지의 편집진에 작가 김내성이 동참하게 된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34]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탐정작가 김내성은 '괴기'에 선도적인 관심과 지식을 갖춘 작가였다. 그는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대중의 감각에 예민한 촉각을 기울이고, 評林初之輔, 江戶川亂步 등의 일본 괴기소설을 본격 탐정소설과 구분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적 우위를 선취한 인물이었다.[35] '괴기'를 표방한 일련의 기사들은 이 같은 편집진의 지적 선도성에 입각하여 첨단의 기호를 실체화하고 보급하려 했던 의도의 결과였던 셈이다.[36]

34) 『조광』의 편집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김은정, 「근대적 포털 사이트(Portal Site)의 탄생—잡지 『조광(朝光)』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1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63-79면.

35) 김내성, 「추리문학소론」(1939년 방송강연원고), 『비밀의 문』, 1994, 명지사, 343-345면.

36) 실제로 1938년 〈괴기 체험기〉를 집필한 작가들은 괴기한 체험을 요구한 편집진의 주문에 부응하기 어려움을 공공연히 표방하면서 기사를 시작하곤 했다. 안회남, 김동인, 방인근 등의 글에서 이러한 사정이 뚜렷이 드러난다. 괴기 서사는 이처럼 미디어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했다. 괴기를 요구하는 편집진의 요구에 응하는 고충은 『중앙』·『별건곤』과 같은 다른 미디어들에 수록된 괴기 체험이나 기사의 서두에서도 발견된다.

물론 『조광』이 '괴기'를 처음으로 타이틀화한 매체는 아니었다. 1920년대 말 '그로테스크'의 번역어가 되면서 의미론적으로 독립한 '괴기'는 잔혹한 범죄나 끔찍한 대상, 퇴폐적인 현상 등을 가리키는 어휘로 미디어에 자주 등장했다. 살인, 시체, 식인 등을 동반한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건은 물론, 상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비일상적인 사실이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상, 이례적인 경험, 탐정소설의 표지, 미신의 풍속, 원시적인 신앙 등 '괴기'는 '常'을 벗어난 갖가지 기사들의 타이틀로 활용되었다.[37] 정상성의 위반을 부정적으로 지시하는 '怪'라는 기호의 광범위한 포용력은 사건, 사실, 경험, 정보, 욕망, 생물 등 온갖 대상들을 지칭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 같은 기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괴기'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재와 양식이 접합하고 교차하는 시험장으로 기능했다.

1937-1938년 집중된 『조광』의 '괴기' 기획들은 이처럼 느슨했던 언표의 범주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첨단적 취미 기호로서 공포의 영역을 일정하게 카테고리화하고자 했던 시도의 하나였다. 이 시도는 근대 지식의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지식인 주체들의 위로부터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37년 8월의 〈괴기 좌담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야담과 민속 분야의 선두 주자였던 차상찬, 유추강, 신정언을 초대 손님으로 하여 함대훈, 노자영, 현인규 등 『조광』 편집진 기자가 함께 한 이 좌담회는 전래의 귀신, 도깨비 이야기들을 모으는 자리였지만 코너의 이름을 '괴담'이 아니라 '괴기'로 명명했다. 초대 문사들이 모두 민속과 야담의 전문가들이었던 만큼 그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귀신, 요괴, 도깨비를 비롯하여 여우 요괴나 상사 구렁이 이야기 등 다양했다. 서사의 출처도 다채로워, 상동, 모화관, 수송동, 아주개 등 경성의 익숙한 장소는 물론, 홍성, 평양, 함종(평남), 춘천, 횡성, 길주, 동해안 율령 등 전국적인 출처와 구체적인 인명이(신포장, 정북창, 이익선, 崔都士 최성오, 이수익, 서춘보 등) 동원되었다. 그 중에는 과거 미디어에서 '야담' 혹은 '괴담'의 명칭으로 발표된 것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서

37) '괴기'라는 용어의 활용과 '괴기'를 타이틀로 한 내외국 기사들에 대해서는 김지영의 앞의 글, 2010, 56-63면 참조.

는 '괴담'으로 지칭했던 바로 그 소재들을 '괴기'로 명명하며 진행된 이 좌담회의 관점과 배치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좌담은 도깨비, 귀신, 송장, 여우, 호랑이 등 무서운 소재의 순서로 진행되었지만, 논의의 진행 과정에는 사실성에 대한 질문이 동반되었고, 논자들의 태도는 다분히 회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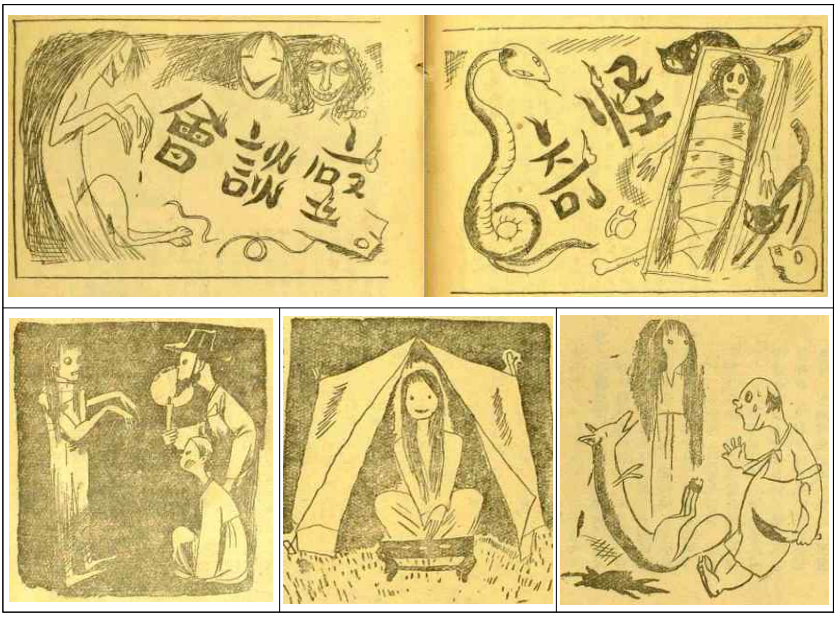
> 함. 옛날에 그렇게 많든 독갑이가 오늘엔 웨 없습니까?
> 유. 글세요. 독갑이란 캄캄한가운데 나오는것인데 오늘은 전등이 발명되고 세상이 밝아저서 없어지지 않었는지오. 요컨대독갑이란 사람의 작란으로 정신관계가 않일가 생각합니다.
> 차. 독갑이란 결국 미친놈작란이지오.[38]

귀신, 도깨비의 일화에 대해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원인은 '정신이상'이었다. 도깨비불은 비금속 원소인 燐의 결과로, 따뜻한 송장은 인삼의 효과로 진단되었으며, 흉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현상은 '정신관계'로, 시체가 음식을 먹는 사건은 屍蜘(쥐)의 장난으로 언급되었다. 도깨비가 나오는 캄캄한 세상과 "전등이 발명되고 세상이 밝아"진 "오늘"을 대조하는 유추강의 발언은 요괴, 귀신, 도깨비를 소재로 한 괴담의 시간과 현재를 차별화하는 시간성의 위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위계화된 시간성의 배치 속에서 전래의 귀신 도깨비담을 전하는 지식인들의 차별화된 입지는 무서운 소재를 다루는 좌담회의 분위기를 명랑한 웃음으로 채우는 전도를 일으켰다. 요괴의 출현이나 귀신에 홀린 이가 등장하는 이야기의 중간 중간에 참석자 일동은 웃음꽃을 피웠다. "일동 웃음", "일동 大笑"와 같은 삽입구들은 특히 둔갑한 여우의 출현이나 미신에 따른 문제 해결과 같은 이야기의 결정적 장면에서 등장했다. 공포가 고조되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공유되는 웃음은 괴담의 시간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위계적 시선과 우월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처럼 타자화된 시간성의 간극은 이 좌담회의 여백을 메우고 분위기를 좌우했던 삽화에서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괴기좌담회」는 무서운 이야기를 진행하는 코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랑한 삽화들로 가득했다.

---

38) 차상찬 외, 「괴기 좌담회」, 『조광』, 1937. 8., 38면.



〈그림5〉「괴기좌담회」의 삽화[39]

피를 흘리는 요괴와 시체들의 익살스러운 표정, 귀신·도깨비의 앙증맞고 귀여운 얼굴들, 홀린 사람들의 동그란 눈동자는 이 좌담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감성을 공포가 아니라 명랑으로 변화시켰다. 이 아이러닉한 감각의 전도는 근대 知라는 렌즈를 거쳐 민속의 세계를 탐구했던 지식인들의 자문화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의식을 확인해 준다. 그로테스크라는 첨단 기호에 부응하려 했던 근대 지의 움직임은, 민족지학적 관점과 접속하여 '괴담'이라는 양식을 확립시켜 나갔고, 괴담이 과거의 이야기 양식으로 확립되자, 다시 귀신과 도깨비에 미혹되는 자문화의 공간을 타자화하고 이국화함으로써 근대라는 시간성의 우월성을 확인했던 것이다. 공포를 웃음으로 치환하는 전복을 초래한 것은 자문화를 이국화하는 이 같은 우월한 자기상의 결과였다. 근대 知와 취미라는 앎의 욕구를 바탕으로 민속적 공포에 접근했던 지식인들이 위계적 시선으로 스스로

39) 차상찬 외,「괴기 좌담회」,『조광』, 1937. 8., 30-45면. 첫 번째 그림은 기사 표제 그림이며, 아래의 그림은 우로부터 각각 여우 귀신, 무덤 귀신, 살아난 송장을 표현한 그림이다.

의 과거를 타자화한 결과, 공포의 대상이 웃음거리로 뒤바뀌어 버린 셈이다.

당대의 현실을 무대로 한 창작 공포물을 '괴기소설'로 표방하고 양식화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이처럼 기존의 문화를 타자화하고 거리화했던 시선의 위계 속에서 가능했다. 괴기소설 「광상시인」과 「낙랑고분의 비밀」(이하 「낙랑」으로 표기)은 기존의 괴담과는 확연히 차이 나는 현대물이었다. 작품은 근대화된 조선이라는 당대의 현실을 무대로, 화가, 시인, 기자와 같은 첨단의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전개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근대 지와 감각을 누구보다도 빨리 선취한 존재들이었다.[40] 그러나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형의 근대성, 창작 여부보다도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작품들이 공포의 대상과 공포의 발현 방식에서 전래 이야기를 재구성한 괴담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격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괴기소설'들이 야기하는 공포는 귀신이나 도깨비와 같은 외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광상시인」의 경우를 보자. 이 소설은 타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화가 '나'가 시인 추암의 살인과 奇行을 보고하는 액자식 구조로 구성된다.[41] 추암의 행위에 대한 보고는 두 층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액자 안 사건으로, 바닷가 마을 M촌에서 첫사랑의 화가를 닮은 '나'와의 교제를 원했던 아내를 죽이고 그 시체를 안은 채 바닷가를 산책하고 정원에서 노래를 읊조렸던 추암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3년 후 경성역에서 나나의 시체를 트렁크에 넣은 채 세계를 주유했음을 암시하는 추암의 행위이다. 이 작품에서 공포는 잔인한 살인, 시체와의 대화·산책·여행 등의 엽기적 행위에서 야기된

40) 「광상시인」의 '나'와 추암이 예술이라는 첨단의 문화 감각을 공유한다면, 「낙랑」의 주인공인 신문기자 승직은 사회변화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감지하고 조사하고 탐사하는 선진적인 감각의 소유자였다.

41) 작품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낙향한 화가 '나'는 자연 속에 '사랑의 집'을 짓고 그림 같은 나날을 보내는 추암 부부를 만난다. 천사와 같이 천진난만한 추암의 아내 나나는 거리낌 없이 '나'에게 접근하고, 추암은 첫 사랑의 화가를 잊지 못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에게 나나와 사귈 것을 권유한다. 한차례 거절했던 '나'는 다시금 접근을 권유받고 나나에게 다가가 보지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앉아 있었고, 질투 때문에 죽였으나 아내의 소원은 들어주고 싶었다는 추암의 고백을 듣고 놀라 달아난다. 3년 후 '나'는 경성역 대합실에서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는 추암을 만나고 트렁크에 나나의 시체가 있다는 암시를 받지만, 도망쳐 나온 거리에서 스치는 자동차 속에 추암과 나나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

다. 그런데 이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인과 동행의 풍경을 촉발한 동인은 사무친 원한이나 적의, 미움 따위가 아니다. 아내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지극한 열정이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한 행위를 빚어낸 것이다. '나'의 경탄과 찬미를 불러일으켰던 아름다운 사랑을 살인과 엽기행각으로 전도시킨 추암의 어두운 내면은 그가 보여준 사랑의 행복한 이미지만큼이나 섬뜩한 충격과 공포를 자아낸다. 이 충격과 공포는 귀신·도깨비 등 외적 대상에서 비롯되는 익숙한 공포와는 출발지점부터가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광상시인」이 사랑의 열정 안에서 공포의 요소를 발견했다면, 「낙랑」은 인간 안에 있는 죽음의 충동을 노출했다. 평양에서 일어난 연쇄 실종과 실종자들의 사체 발견 사건에서 출발하는 이 소설에서, 일련의 무서운 사태를 발발한 원동력은 한 여인의 강렬한 죽음 욕망이다. 신문기자 승직은 실종된 동생의 흔적을 추적하던 중 불로수를 마시고 천 년을 살아온 낙랑의 여인과 마주친다. 고도로 발달한 문화국 낙랑에서 태어났던 여인은 화학 연구가였던 연인이 만들어낸 불로수를 마시고 불사의 몸이 되었지만, 미처 불로수를 마시지 못한 채 戀敵에게 살해 된 연인을 그리워하며 천 년을 살았다고 고백한다. 불교의 윤회설을 접한 여인은 환생한 연인을 찾아내어 최면술로 기억을 되살린 후 불사를 끝낼 수 있는 죽음의 약을 찾으려고 시도했고, 평양의 실종자들은 여인에게 이끌려 동굴에 들어갔다가 공포스런 동굴 입구의 형상에 의해 모두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이다. 천 년을 살았던 불사의 여인이 갈구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 앞으로 몇천년을, 몇만년을 살아야 할지 끝이없는 이 목숨은 참으로 진저리 나는 일이 었습니다. 죽지못하는 운명! 그것처럼 악착한 것은 없습니다. (…) 몇사람의 목숨이 희생 되더라도 나 자신이 이 지긋지긋 한 세상을 버리고 영원의 안식으로 가기 위하여는 최후 발악을 할 결심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이번에도 또 실패하고 말게 되면 아조 단념하고서 무슨 짓으로 든지 이 세상을 망쳐 놓고 말 심산 이었습니다.[42]

42) 주요섭, 「낙랑고분의 비밀」, 『조광』, 1939. 2., 360-362면.

건장한 남성들이 잇달아 사라지고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은 삶을 "진저리나"고 "악착한 것"으로 저주하는 여인의 염오에서 출발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버리고 영원의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사람의 목숨이 희생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여인의 무서운 집념은 삶의 지속과 생명 연장을 추구하는 당위적 감각을 전복하는 섬뜩한 충격을 준다. 이 죽음 욕망은 그것이 불사의 생명을 획득하여 세상천하를 모두 주유하면서 천 년을 살아낸 경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천년이라는 삶의 경험은 원숙한 지혜나 포용력이 아니라 "어데까지 차고 무표정한 얼굴"[43]로 結晶화되어 나타난다. 심지어 죽은 연인의 환생임이 증명된 주인공 승직이 남은 생을 함께 하기를 요청해도 여인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하다. 사랑의 성취에 대한 소망조차 압도하는 이 도저한 삶에의 원망과 저주는 관습화된 선악의 감각을 뒤흔들면서 공포감을 자아낸다. 생명의 당위적 요청을 거역하는 여인의 태도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고 혼란시키면서 존재의 현존을 불안 속에 빠뜨린다.

『조광』의 괴기소설들은 이처럼 인간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들추어내면서 출발했다. 사랑의 열정에서 우러나는 살인의 충동, 생명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죽음의 갈망과 같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인간 욕망의 심연을 들추어내는 데서 식민지 대중서사는 비로소 '괴기소설'이라는 공포서사의 자리를 마련해 낸 것이다. 비현실, 초현실적 존재에 대한 갖가지 풍문과 관습, 미신적 감각 등을 종횡하며 근대 합리성과 갈등을 겪던 끝에, 쾌락적 공포에 대한 식민지 문화의 탐색은 마침내 인간 내부의 은폐된 욕망과 심리의 불안정성에서 공포의 원천을 찾아냈다. 인간의 재발견을 통해 비로소 전래의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쾌락적 공포를 구현하는 근대 공포물로서의 자립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 같은 서사적 탐색의 역정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인간'이라는 답을 통해 마침내 풀어냈던 저 오이디푸스의 발견을 고전적 예술형식의 상징적 출발 지점으로 설명했던 헤겔의 미학사를 떠올리게 한다. 헤겔에 따르면 유한한 형상 속에서 무한자를 표현하기 위해 온갖 기형이태의 무분별한 양상으

43) 주요섭, 「낙랑고분의 비밀」, 『조광』, 1939. 2., 354면.

로 뻗어나갔던 고대의 상징적 예술형식이 안정된 고전적 예술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영혼과 육체를 중개하여 동일성을 확보하는 자유로운 주체성 즉, 인간이라는 매개를 발견하면서였다.[44] 쾌락적 공포라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화의 요구 앞에서 갖가지 서사적 파탄과 실험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인간 내면의 불합리한 충동과 모순을 발견한 식민지 공포서사의 역정도 이와 유사했다. 영혼이라는 무한자의 자유로운 활동성을 육체라는 유한자 속에 압축하고 매개한 인간의 형상을 통해 고전적 예술형식이 안정감을 확립했던 것처럼, 식민지 공포서사 역시 인간 내부에서 존재의 안정감에 균열을 일으키는 심연을 발견함으로써 자립적 양식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 공포서사는 '괴기소설'에 이르러 비로소 마술적인 외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쾌락적 공포에 대한 대중문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사적 토대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정을 통해 성립한 괴기소설은, '괴담'의 그것과는 또렷이 대립하는 시간의식을 드러냈다. 인간의 공포스런 내면의 심연을 들추어냈던 괴기소설들의 스토리는 과거의 것으로 타자화되었던 괴담과는 반대로 미래적 시간성에 대한 열망과 접속해 있었다. 「광상시인」의 추암이 보여준 사랑하는 사람과의 낭만적인 결혼, 「낙랑」의 서사를 추동해낸 생명의 비밀을 풀어헤친 과학은 모두 근대가 충동했던 문명의 약속에 토대를 둔다. 두 소설의 서사적 모험은 있는 그대로의 조선적 현실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둔 모던이라는 미래상의 판타지적 충족 위에서 출발했다. 고도로 과학이 발전한 고대 낙랑의 존재(「낙랑」),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문화 주택을 짓고 시와 그림을 즐기면서 천진난만하게 사는 시인 부부의 모습(「광상시인」)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는

44) 헤겔은 유한자와 무한자, 이념과 형태가 완전한 일치에 이르지 못하여 온갖 과도한 형상을 창출하던 고대의 상징적 예술형식이 의미와 형태의 상징적 대립에서 벗어나 내면적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자유로운 주체성의 발견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의미와 형상, 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이 대립, 분열, 긴장 속에 있었던 상징적 예술형식은 인간이라는 매개를 발견함으로써 이 분열을 극복한다. 인간의 영혼으로 생동하는 육체 속에서 자연과 정신, 영혼과 육체가 매개된 동일성을 찾게 되어 안정된 미적 통일성과 균형을 찾아낸 것이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예술형식이는 것이다. 토마스 메춰・페터 스쫀디, 『헤겔 미학 입문』, 여균동 역, 종로서적, 1983, 135-150면. G.W.F.헤겔, 『헤겔미학Ⅱ』, 두행숙 역, 나남, 1996, 109-199면.

결핍되어 있었던 '모던'의 미래상을 대리 충족하는 모티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판타지는 '모던'이라는 미래의 이미지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안과 위험의 감각을 들추어내는 데서 괴기다운 정체성을 드러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장면으로 보였던 산책과 노래가 시체와의 연애 행각이었음이 드러나는 엽기적인 순간(「광상시인」),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과학적 성취의 결과가 잔인한 죽음의 욕망으로 표출되는 순간(「낙랑」) 속에는 과학과 문명의 미래상을 역전하는 경계와 공포의 감각이 숨어 있다. 근대적 사랑과 자유의 가치가 욕망의 무한한 발산으로 이어지고(「광상시인」), 근대 과학이 생명의 비밀을 그 극한에까지 접근하는 순간에 대한 상상력은(「낙랑」) 무서운 비극과 공포의 전율로 구체화된다. 자유의 희열과 과학의 발달이 욕망의 무한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될 때, 인간이 마주치는 것은 무서운 비극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실험의 결과로 등장하는 광인, 鬼人(불사의 여인)의 존재와 그들이 표상하는 공포와 불안의 정서는 근대성에 저항하는 무의식을 은연 중에 함축한다. 식민지 근대인의 충족되지 않는 결핍으로부터 촉발된 판타지들은 결국 온전한 근대라는 결여된 대상의 충족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노출하는 역전적 의식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 대한 갈망을 충족하는 판타지 속에 근대의 약속을 전복하는 공포감을 장착하는 이야기 구조는 괴담의 시간적 지향성과 또렷한 대립점을 이룬다.

자민족의 과거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둔 나르시시즘적 우월감과 쾌락적 공포라는 난해한 감각에 대한 도전의식이 창출한 이 서사적 공포의 감각은, 괴담의 그것과 현격히 변별되는 '숭고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로테스크의 상상력은 존재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끔찍하고 불온한 대상과 대면케 한다는 점에서 공포를 야기하지만, 이 공포는 동시에 그런 난해하고 어마어마한 대상에 대한 도전과 정복의 의지를 함축하는 불안정한 쾌감을 지향한다. 즉, 이 상상력은 살인으로 치닫는 사랑이나 죽음의 충동과 같이 삶을 부정하고 존재에 균열을 일으키는 감각을 낳았지만, 또한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으로 상정된 근대라는 절대적 총체성의 이념에 바탕을 둔 식민지 청년의 경이와 도전의식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숭고성을 띠는 것이다.[45]

이 숭고한 공포 속에는 식민지 청년들이 상상했던 소망스런 미래와 존재론적 불안이 동시에 은폐되어 있었다. 근대를 향한 조선 청년들의 동경과 열망은 쉽게 보답 받지 못했다. 미신과 인습이 지배하는 조선의 현실은 그들이 갈망했던 근대와는 거리가 멀었고, 제국을 경유하여 학습된 문명과 문화의 준거 앞에서 식민지 청년들은 제아무리 최첨단의 지식으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한갓 주변인에 지나지 않았다.[46] 이들에게 소망스런 근대 문명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결여의 형식으로만 존재했다. 천 년을 넘어 도래한 사랑의 성취보다도 죽음을 선택하는 불합리한 생명의 잔인성(「낙랑」), 극한적인 경지까지 추구된 사랑의 자유와 절대화된 자아의 끔찍한 귀결은(「광상시인」) 식민지 지식 청년들이 갈망했던 미래상에 숨겨져 있던 무의식적 혼란과 두려움을 노출했다.

그리하여 사랑의 광기와 불사적 존재의 죽음 충동은 근대화에 뒤처진 현실의 결핍을 충족하는 메타포인 동시에 소망하는 근대 내부의 결여의 자리를 가리키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했다.[47] 살인과 죽음을 통한 욕망의 충족은 근대성을 지향하는 존재의 내부에 숨어 있는 해결 불가능한 결여와 이 결여의 충족불가능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근대성을 지향하는 존재 내부에 숨어 있는 이 결여는 신문명을 추구하는 자아의 동일성을 위협하는 내부의 타자이자,

45) 숭고는 태생적으로 공포와 매우 밀접한 감성이다. 칸트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대상에 압도되는 감성(공포감) 속에서 이 감성을 넘어서는 저항력과 의지가 작동할 때 숭고의 느낌은 발생한다. 칸트는 숭고를 부정적인 쾌감으로 분석했다. 칸트에 따르면 미가 외적 대상의 형식에 의해 야기되는 대상 자체의 속성인 것과 달리, 숭고는 형식을 지니지 않는 주체 내부의 현상이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대상 앞에서 인간은 놀라움, 두려움, 공포감 등으로 논리적 평가 이전에 감성적으로 대상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런 상태는 무한한 크기 혹은 절대적 총체성이라는 이념을 일깨우고, 이런 지각은 그 생각을 처음 직면했을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불쾌감)을 쾌감으로 전환시켜 준다. 칸트는 이때 인식자는 대상을 숭고하다고 언명한다고 보았다. 숭고한 것에 마주할 때 인간의 감정은 대상에게 끌려갈 뿐만 아니라 부단히 대상으로부터 반발되기도 하는 저항성을 지니며, 숭고의 대상이 되는 거대한 대상/현상들은 인간 내부에 다른 종류의 저항 능력을 발발시키고 이 저항 능력은 대상에 대한 도전의 의지를 일으킨다. 이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2019, 171-179면; 토마스 메춰・페터 스쫀디, 앞의 책, 155-157면.

46) 김내성의 괴기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지니는 주변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먼저 언급되었다. 김지영, 「식민지 예술가의 주변적 정체성과 모던 감성 개발 프로젝트」, 『민족문화연구』 제7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93-195면.

47) 두 모티프는 한 편으로는 알 수 없는 근대, 도달하지 못한 근대에 대한 공포를, 다른 한 편으로는 근대성이 자체 안에 함축하고 있는 내부의 결핍을 동시에 지시하고 있다.

이질성의 표징이며, 근대적 상징질서가 실패하는 지점이다. 충족에 의한 좌절, 성취에 의한 절망이라는 이 아이러닉한 공포는 근대성을 구성하는 상징질서 내부에 숨어 있는 초자아의 충동과 그 필연적 균열을 동시에 지시했다.

현실의 결핍을 보완하는 도전의식에서 출발하면서도 도전하는 자아의 욕망 안에 숨은 모순과 균열을 노출하는 이 숭고한 공포는 근대에 대한 갈망과 갈망하는 근대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대의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지식인의 초조감과 존재의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의 뿌리를 타자화하고 외적 권위에 의존하여 미래적 시간성을 선취하려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불안의 결과였다.

5. 나오며

공포물은 쾌락과 두려움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이 접합한 것인 만큼 단순하지 않은 심리작용을 동반한다. 존재가 현존을 유지하기 위해 배제한 것들을 위반하는, 금기를 넘어선 도발을 통해서 쾌락적 공포는 야기된다. 삶의 안녕을 위해 타자화하고 배제한 것들이 금기의 경계를 넘어 일상 위로 출몰할 때, 그것은 존재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쾌락적 공포는 현존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 불안의 요소들을 '다시 거리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무서움 속에 빠져들기만 해서는 쾌락을 동반하는 오락으로서의 공포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괴담과 괴기소설이 분화되는 과정 속에는 이 난제를 풀어내는 지난한 역정이 숨어 있다. 괴담, 괴기소설의 분화과정은, 귀신·도깨비의 존재를 호명하고 실체화하면서 출발했던 미결정의 공포가 귀신 도깨비를 과거화하고 타자화함으로써 현존의 안정성을 꾀하다가, 다시 인간 내부의 결여를 들추어냄으로써 존재론적 공포에 다가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역정은 불합리한 감각의 미혹에 대해 근대가 반응하는 방식, 곧 근대의 운동성을 드러내는 역정에 다름 아니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근대 知는 내부의 미혹을 직시하고 대결하기보다는 다른 시간성 속으로 타자화하는 위계적 시선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해나갔다. 귀신과 도깨비가 타자화되고 다시 존재 내부의 결핍이 노출되는 근대 대중 공포서사의 분화과정은, 내부의 미혹을 밀어내고 타자화함으로써만 존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근대의 합리성이 실은 얼마나 불완전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인가를 알려 주는 역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포서사는 밀어내고 배제했던 모순과 불합리가 귀환하면서 성립하는 양식이다. 괴담이 초현실적 힘을 지닌 이물의 호명을 통해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괴기소설은 이물들을 밀어낸 근대 주체의 내면에 숨은 결여를 들추어냄으로써 근대적 상징질서가 실패하는 지점들을 노출했다. 괴기소설이 기획한 모던한 공포는 모던이라는 소망스런 시간성이 충족되는 상상적 자리에서 출현하는 결핍을 노출하는 데서야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충족인 동시에 결핍이 되는 이 모순적인 공포는, 식민지 조선에서 모던의 감각이란 오직 결여의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었던 미래적 시간성의 산물이었음을 역설해 준다.

지식인과 기층민중을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 시선에서 미결정의 공포가, 양자를 위계화하는 수직적 시선에서 숭고한 공포가 마련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근대 知는 스스로의 우월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혹과 불합리를 위계적 시선으로 배척하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그리하여 성립한 근대의 정당성은 기실 모순과 균열을 그 안에 내장한 가장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여를 노출하고 대면하는 작업은 그때까지 조선의 대중서사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기능했다. 괴기소설은 모던한 시간성 안에 숨어 있는 불안과 균열의 요소들을 직시하고 토로하는 언설의 장소로 한국문학사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내성, 「추리문학소론」(1939년 방송강연원고), 『비밀의 문』, 1994, 명지사, 343-345면.
김소영, 『근대성의 유령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0.
김지영, 「'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개념과소통』 제5호, 한림대 한림과학원, 2010, 39-78면.
_____, 「식민지 예술가의 주변적 정체성과 모던 감성 개발 프로젝트」, 『민족문화연구』 제7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173-212면.
_____, 「괴기, 불균등한 근대에의 저항과 공포의 변증법—1960년대 잡지 『명랑』의 괴기 서사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64집, 우리문학회, 2019a, 411-456면.
_____, 「계몽의 불안과 공포의 영토화—일제강점기 『매일신보』 괴담의 감성구조와 서사관습」, 『어문논집』 제87집, 민족어문학회, 2019b, 117-160면.
김은정, 「근대적 포털 사이트(Portal Site)의 탄생—잡지 『조광(朝光)』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1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63-79면.
김태웅, 「차상찬의 지방사정조사와 조선문화인식」, 『역사교육』 제148집, 역사교육연구회, 2018, 227-256면.
나카무라 시즈요(中村靜代), 「植民地朝鮮における怪談の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박숙자, 「괴기에서 넌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별건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75-195면.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서: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2005.
염원희,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현대 도시전설의 형성에 관한 시고—『매일신보』 연재 괴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69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57-90면.
이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김상현 역, 책세상, 2019.
이주라, 「식민지 시기 괴담의 출현과 쾌락으로서의 공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93-321면.
_____, 「일제강점기 괴담의 특징과 한국 공포물의 장르적 관습—『매일신보』 소재 괴담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5집, 우리문학회, 2015, 341-374면.
정혜영, 「1930년대 종합대중잡지와 '대중적 공유성'의 의미—잡지 『조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39-155면.
조영복, 「1930년대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2, 155-157면.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제5호, 한국여성연구소, 2005, 43-87면.
최수일, 「잡지 『조광』의 목차, 독법, 세계관」, 『상허학보』 제40집, 상허학회, 2014, 113-145면.
토마스 메춰·페터 스쫀디, 『헤겔 미학 입문』, 여균동 역, 종로서적, 1983.
폴 웰스, 『호러 영화: 매혹과 저항의 역사』, 손희정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G.W.F.헤겔, 『헤겔미학Ⅱ』, 두행숙 역, 나남, 1996.

「뉴스라이브러리」, 네이버,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2020. 9. 30. 검색).

【Abstract】

From Undecided Fear to Sublime Fear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Process of Horror Narrative in Colonial Korea—

Kim, Chi-Young*

This article attempted to examine the search of colonial Korean pop culture for hedonistic fear through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between ghost stories and grotesque novels. Korea's recreational horror genre started with the ghost stories in the Daily Maeil in the 1927-1930. The ghost story of the Daily Maeil was constructed with attemped horror which was based on surreal objects such as ghosts and goblins, and the media juxtaposed traditional ghost stories with contemporary surreal experiences together. The ghost stories of the Daily Maeil in the 1927-1930 promoted an undecided fear that neither witchcraft nor science could approve, since it was not easy to secure narrative stability by grafting the cultural request for grotesque taste with reality in Colonial Korea. As intended horror depended on the oddities of the objects of stories such as ghosts and goblins, the publishing subjects of the media who composed the ghost story had to establish a logical basis for the reality of ghosts and goblins. The desire to streetize the surreal experience that was difficult to explain resulted in fossilizing a ghost story into a story of the past, which was a consequence of securing a sense of rationality of the present. It could be said that the fact that the ghost story adhered to the temporality of the premodern era was the result of the self-rationalization of modern knowledge, which appropriated the logical and ideal as the present and projected the irrational and irrationality into the past. The comprehensive magazine Cho-kwang, which pursued popularity, launched a new style of horror narrative called 'grotesque novels' in a hierarchical perspective, which wa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past 'monster stories.' In the 'grotesque novel', the colonial horror narrative focused on the abyss that caused a crack in the stability of existence within humans, which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Education, Daegu Catholic Univ.

was hardly found in the old ghost stories of the past. Through this, the colonial horror narrative was able to lay the foundation for a narrative that could respond to the demands of popular culture for hedonistic horror without relying on a magical external existence.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ghost stories pointed to the fossilized past, the grotesque novels aimed at the ideology of the absolute totality of modernity assumed as a time of infinite possibility, but exposed a sense of lack and anxiety hidden in the longing of the colonial youth for the modern era.

Keywords: Horror, Popular novels, Genre novels, Popular sensibility, Coloniality, Goedam (ghost stories), Grotesque novel, Kim Nae-seong, the Daily Maeil, The Daily Chosun, Cho-kwang, Ghosts, Goblins, Grotesque.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